

# 국어 영역

##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학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실시한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자전거 통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학생, 손△△ 학생, 전□□ 학생의 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우리 학교 앞은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만 되면 서로 뒤엉켜 자전거 사고의 위험성이 큼니다.

**손△△:** 학생들의 자전거 운전 습관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골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거칠게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자전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자전거 관리 소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 타이어나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라이트가 제대로 켜지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저는 관련 행정기관에 학교 진입 골목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학생들의 올바른 자전거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영상 시청하는 것을 위주로 안전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안전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제 생각에는 학생회에서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자전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또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사회자:** 지금 전□□ 학생은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캠페인 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앞서 두 분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요구와 안전 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들 대안이 적절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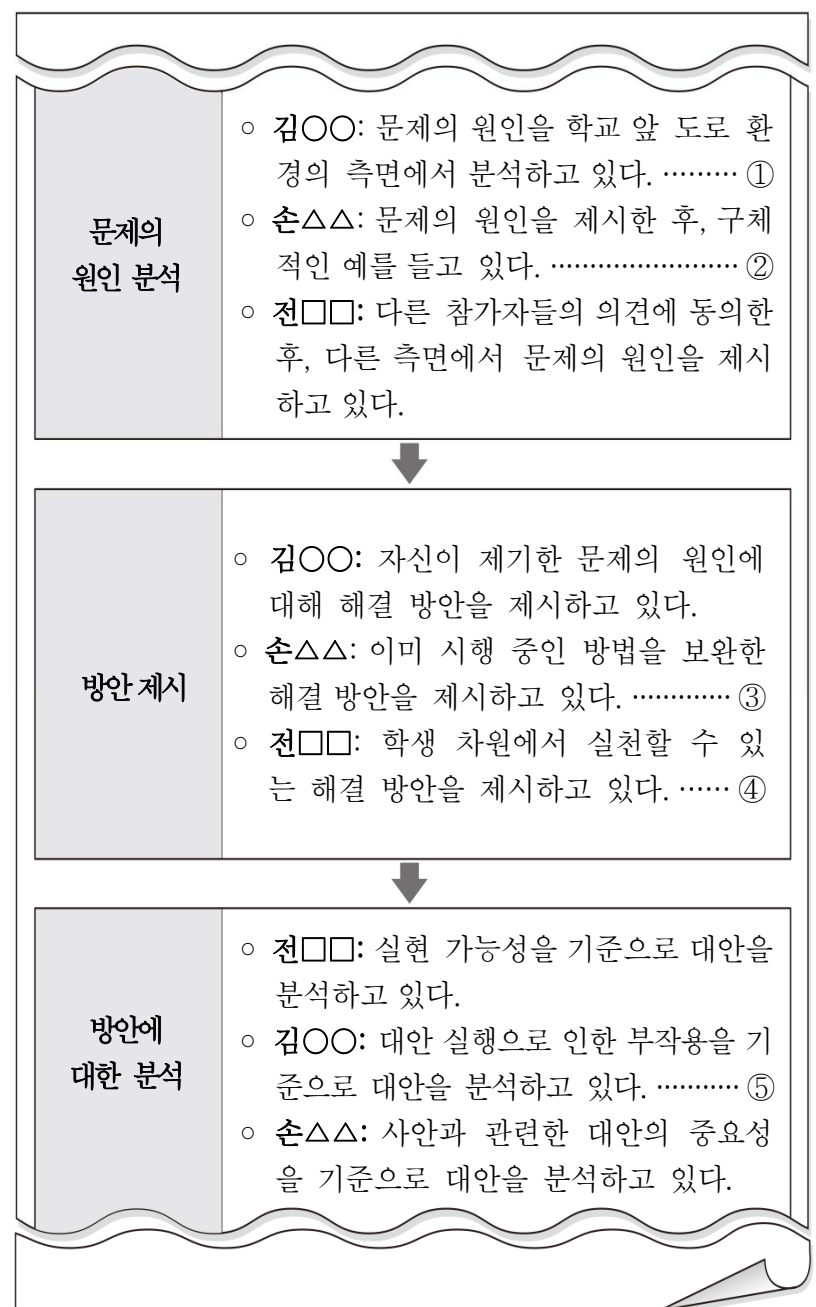
**전□□:** 학교 앞 진입 골목은 차량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보다는 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안전 교육을 하면서 자전거 관리에 관한 캠페인도 함께하면 안전 교육만 할 때보다 자전거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네요.

**손△△:**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특히 자전거 점검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자전거 점검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다음 토의 시간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1. 토의 절차에 따라 위 토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위 토의를 진행한 사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토의 참가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다음 토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안내한 후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④ 토의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토의 참가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며 토의 주제를 환기하고 있다.

3. 다음은 토의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토의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청중 1:** 지난주에 학교에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지나가던 나를 미처 못 본 거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청중 2:** 안전 교육의 방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청중 3:** 그동안 난 자전거 관리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전거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토의를 통해 알게 됐어. 앞으로 자전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겠어.

- ① 청중 1의 반응으로 볼 때,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리며 손△△ 학생이 말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있군.
- ② 청중 2의 반응으로 볼 때, 손△△ 학생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③ 청중 3의 반응으로 볼 때, 전□□ 학생이 제시한 대안을 듣고 자신이 이전부터 중시했던 자전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보완하고 있군.
- ④ 청중 1과 청중 2의 반응으로 볼 때, 청중 1은 청중 2와 달리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군.
- ⑤ 청중 2와 청중 3의 반응으로 볼 때, 토의의 내용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군.

[4~5] (가)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시오.

(가)

**학생 1:** 지난번에 발표 제제는 숨어 있는 동전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으로 정했는데, 발표문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

**학생 2:** 사전 조사를 해보니깐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면서 친구들의 참여도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학생 3:** 맞아.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대한 정보가 친구들에게 유익할 거야.

**학생 1:** 그러면 여기 우리가 찾아온 자료 중에 어떤 걸 사용할까?

**학생 3:** 음, 여기 이 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을 훼손한 사람을 처벌했다는 이 기사는 우리 발표 방향과는 안 맞는 것 같아.

**학생 2:** 그러네. 그럼 어떤 자료들이 더 필요할까?

**학생 1:** 음, 일단 이 운동에 대해 설명한 기사문이나 사람들의 참여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 3:** 그것도 좋고, 한 해에 폐기되는 동전의 양이나 동전을 만들 때 드는 비용에 관한 자료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해서 다시 모아자.

(나)

여러분, 한번쯤은 서랍이나 가방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동전을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 저 역시 얼마 전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 놓여 있는 동전들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래도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동전은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는 화폐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은행에서는 매년 이렇게 숨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 등에 오랫동안 넣어 둬으로써, 시중에 동전이 돌지 않아 매년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표를 보여 주며) ㉢ 한국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잠깐 여기 그래프를 보시죠. ㉣ 2014년만 해도 500원 동전이 7천 6백만 개, 100원 동전이 2억 9천만 개가 새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전의 액면 금액보다 그 동전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액면 금액은 10원이지만, 제작 비용은 동전 하나에 40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낭비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외에도 동전 다시 쓰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저금통이나 서랍에 보관하지 말고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동전을 기부하면 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 동전도 원활하게 유통되겠죠.

㉤ 여러분이 이런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신다면 동전의 제작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서랍이나 가방에 숨어 있는 동전을 한번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가)의 발표 준비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 ㄴ. 수집한 자료 중에서 발표 주제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 ㄷ.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한다.
- ㄹ. 발표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② ㉡: 중심 화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③ ㉢: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④ ㉣: 발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
- ⑤ ㉤: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협동 작문 과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설득적 글쓰기
- 모둠원이 정한 중심 소재: 휴대용 물통 사용
- 글의 주제: 휴대용 물통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과 그 해결 방안

[글의 초고]

음료 판매점 등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30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회용 컵 하나를 만드는 데 11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1톤의 컵을 만들려면 20년생 나무를 20그루나 베어 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텀블러’로 불리는 휴대용 물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휴대용 물통의 판매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휴대용 물통의 판매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먼저 사용상의 불편을 들 수 있다. 휴대용 물통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휴대용 물통 사용을 주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휴대용 물통에 뜨거운 물이나 음료를 넣으면 환경호르몬 물질이 배출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용 물통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A]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용상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휴대용 물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용 후 세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점들이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대용 물통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되더라도 미량이 검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B]

6. <보기>는 ‘글의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모둠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 ㉡ 중, ‘글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모듬원 1: 독자들이 실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일회용 컵 사용과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던데, 그것을 활용하여 글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모듬원 2: 그래, 좋아. 그리고 ㉡ 휴대용 물통을 직접 사용하면 좋았던 점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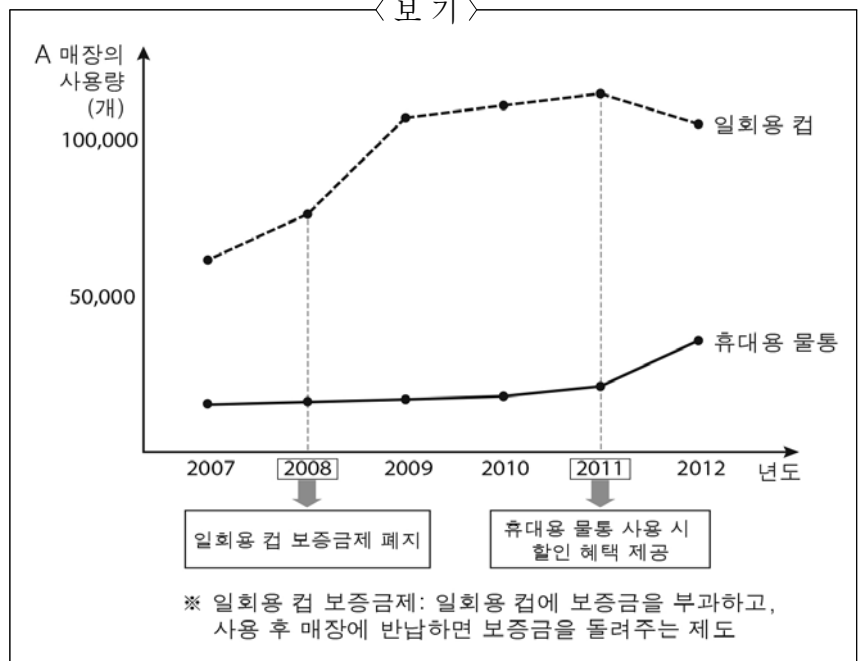
모듬원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는 ㉢ 휴대용 물통을 사용할 때의 불편한 점과 ㉣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휴대용 물통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

모듬원 4: 나도 비슷한 자료를 봤어.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휴대용 물통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A]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① 휴대용 물통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어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②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음료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③ 휴대용 물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④ 일회용 컵의 보증금제를 폐지하면 친환경 소재의 휴대용 물통의 제작이 늘어날 것임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 ⑤ 휴대용 물통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8. [B]에 결론을 쓰고자 할 때, <조건>에 맞추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언급할 것.
-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앞의 해결 방안들을 실천한다면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일회용 컵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이다.
- ② 이처럼 휴대용 물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물통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③ 정리해 보면, 휴대용 물통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대용 물통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 ④ 이러한 해결 방안이 마련된 뒤에는 휴대용 물통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휴대용 물통 사용에 대한 혜택과 휴대용 물통의 안전성이 알려진다면 휴대용 물통 사용은 활성화될 것이다.
- ⑤ 이와 같은 방안을 실천한다면, 편리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회용 컵 사용은 줄어들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는 휴대용 물통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휴대용 물통 사용의 활성화는 우리들에게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지난 일 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활동에 관한 글을 써 보자.

[학생의 글]

학기 초에 우연히 복도 게시판에서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보았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스포츠 재능 나눔 동아리가 체력을 키우고자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평소 체력이 약한 편이었던 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피곤함을 자주 느껴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 그런데 망설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6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점심 시간에 30분씩 학교 체육관에서 ㉡ 진행하였다. 처음 2주간은 멘토와 함께 가볍게 배드민턴을 하면서, 이를 통해 서로 호흡을 맞추고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 동행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구력 향상을 위해 오래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근력 운동이었다.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지루하고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결국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나의 생각을 알게 된 멘토는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근력 운동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지루함을 덜 수 있었다. 또 근력 운동을 함께한 멘토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후 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열 번 하는 것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마흔 번 정도는 거뜰히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다. 그 결과 학교에서 측정한 체력 평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보다 더 좋은 급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체력이 향상되니 학교생활을 하면서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었고, 수업 시간에도 졸지 ㉤ 않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여 지금의 체력을 유지해야겠다.

9.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고려한 내용이다. ‘학생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서 체험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①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항목별로 안내해야겠어. .... ②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③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을 제시해야겠어. .... ④
- ‘체력 증진 멘토링 교실’ 참여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드러내야겠어. .... 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로 고친다.
- ③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병행’으로 바꾼다.
- ④ ㉣: 문맥을 고려하여 그 문단의 끝부분으로 옮긴다.
- ⑤ ㉤: 연결어미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않도록’으로 고친다.



1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음운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며, 탈락은 두 음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입니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이며,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럼 다음 학습 자료들은 각각 음운 변동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학습 자료]

- |            |             |
|------------|-------------|
| ㉠ 줍+고→[줍꼬] | ㉡ 넣+은→[너:은] |
| ㉢ 먹+는→[멍는] | ㉣ 쌓+지→[싸치]  |
| ㉤ 논+일→[논닐] |             |

- ① ㉠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ㅁ’의 영향을 받아 ‘ㄱ’에 ‘ㄱ’이 추가되어 ‘ㄱ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② ㉡은 축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 ③ ㉢은 탈락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ㄴ’의 영향을 받아 ‘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교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ㅈ’이 ‘ㅎ’의 영향을 받아 ‘ㅊ’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⑤ ㉤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ㄴ’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ㅣ’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ㄴ’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2.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아버지: (아이 방으로 들어오며) 은주야, ㉠ 이거 받아.  
은 주: (선물을 보며) 어?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응. 스웨터야. 어제 고모를 만났는데, 곧 있으면 네 생일이라고 주시더라. 마음에 드니? ㉡ 저 옷이랑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 주: 와! ㉢ 그러면 정말 예쁘겠네요. 내일 당장 입어야겠어요.  
아버지: 그래.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려.  
은 주: 네, 저도 ㉣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 그런데 내일 아빠랑 영화나 보러 갈까?

- ① ㉠은 지시하는 대상이 청자인 은주에 비해 화자인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 ② ㉡은 지시하는 대상을 청자인 은주도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③ ㉢은 아버지가 앞에서 한 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뒤에 추가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은 고모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드리라는 말을 대신 표현하여 담화의 중복을 피한다.
- ⑤ ㉤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은주와 나눈 대화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 나는 된소리 ..... ㉠  
2.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 ㉡  
다만, ‘ㄱ,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 ㉢

- ① [으뜸]으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으뜸’으로 표기해야겠군.
- ② [거꾸로]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거꾸로’로 표기해야겠군.
- ③ [살짝]으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살짝’으로 표기해야겠군.
- ④ [씩씩]으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겠군.
- ⑤ [낙지]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낙지’로 표기해야겠군.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늦다

[ I ] 동사

㉠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그는 버스 시간에 늦어 고향에 가지 못했다.

[ II ]

㉡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 시계가 오 분 늦게 간다.

㉢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 또는 시기가 한창인 때를 지나 있다.

▶ 우리 일행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 ㉣

㉤ 곡조, 동작 따위의 속도가 느리다.

▶ 박자가 늦다./ ㉤

이르다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 그는 어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에】’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③ ㉢에는 ‘발걸음이 늦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느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늦다[II]I’이다.

15. ㉠ ~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할아버지께서 세뱃돈을 주셨다. →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	그의 말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다. → 그의 말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	그는 공연장에서 춤과 노래를 불렀다. → 그는 공연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	연서는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말했다. → 연서는 “내가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

- ① ㉠: 서술어 ‘주셨다’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없다.  
 ② ㉡: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 목적어의 하나인 ‘춤’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④ ㉣: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⑤ ㉤: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교에서 ‘성인’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순자는 누구나 ㉠ ‘심(心)’을 수양하면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수양론에는 인간이 이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 경주(傾注)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道)’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이다. 즉 심은 인간의 욕망을 다스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은 불안정하여 외부 사물에 방해를 받아서 ㉢ 편견(偏見)에 빠지기 쉽다. 인간의 심이 편견에 빠지면 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순자는 이렇게 심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 ‘폐(蔽)’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심이 폐의 상태가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어긋나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순자는 인간이 수양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심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허(虛)’, ‘일(壹)’, ‘정(靜)’을 제시하고 있다. ‘허’는 심이 과거의 지식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기존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 편견이 생기고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심이 허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 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일’은 심이 여러 가지 사물의 차이를 구별하는 가운데,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심이 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물을 서로 ㉤ 혼동(混同)하지 않고 도에 집중하게 되어 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은 심이 고요함을 간직하여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인간의 심은 항상 움직이면서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

기 쉽다. 이렇게 되면 심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심이 정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고요함을 유지하여 도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심은 ‘허일정’을 통해, 편견을 극복하고 도를 ㉥ 인식(認識)하여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순자는 이와 같은 이상적 상태를 ‘대청명(大淸明)’이라 부르고 이에 도달한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특별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추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양에 ㉦ 정진(精進)할 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6. 윗글에 나타난 ‘순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② 일은 사물의 구별이 없이 통합된 심의 상태이다.  
 ③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  
 ④ 성인은 대청명이라는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한 존재이다.  
 ⑤ ‘심’이 상상이나 잡념에 사로잡히면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이 되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② ㉠은 수양의 과정을 통해 ㉡에 도달할 수 있다.  
 ③ ㉠, ㉡ 모두 도를 인식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  
 ④ ㉠은 ㉡과 달리 외적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⑤ ㉡은 ㉠과 달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18.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장자’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장자는 ‘도(道)’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허일정을 심(心)을 비우고, 심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며, 고요함의 상태에서 외적 사물에 동요되지 않고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허일정을 욕망, 지식 등과 같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날마다 털어냄을 통해 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순자와 장자는 모두 ‘허일정’을 ‘심’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군.  
 ② 순자와 장자는 모두 ‘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허일정’을 제시하고 있군.  
 ③ ‘심’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순자와 장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군.  
 ④ 순자는 욕망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장자는 욕망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군.  
 ⑤ 순자와 장자는 기존 지식을 비운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채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군.

19.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힘이나 정신을 한곳에만 기울임.  
 ② ㉡: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③ ㉢: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④ ㉣: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⑤ ㉤: 여럿 가운데서 앞서 나아감.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를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 그림은 미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학자 뒤프렌은 그 그림은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미적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미적 지각이 시작될 때 비로소 미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자가 현전(現前), 표상(表象), 반성(反省)이라는 미적 지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미적 대상을 점점 더 심오하게 이해한다고 보았다.

뒤프렌에 따르면 현전은 감상자가 작품의 감각적 특징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목하는 단계이다. 즉 색채, 명암, 질감 등에 매료되어 눈이 커지거나 고개를 내미는 등의 신체적 자세를 ㉠ 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현전은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감각적 소재’로 인식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전은 미적 대상의 의미를 막연하게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현전의 막연함은 표상을 통해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표상은 작품을 상상력으로 지각하는 단계이다. 상상력은 감상자가 현전에서 파악한 것에 시공간적 내용과 구체적 상황을 추가해 풍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은 감상자가 작품을 특정 대상이나 현실이 묘사된 ‘재현된 세계’로 이해하게 한다. 예를 들어 푸른색이라는 감각물에 눈동자가 커지면서 주목하는 것이 현전이라면, 푸른색을 보고 ‘가을날 오후 한적한 시골의 맑고 넓은 창공’이라는 세계를 떠올리는 것이 표상이다. 하지만 표상은 환상을 만들게 된다.

표상이 만든 환상은 반성을 통해 극복된다고 뒤프렌은 생각했다. 반성에는 비평적 반성과 공감적 반성이 있다. 비평적 반성은 구도, 원근법, 형태 묘사와 같은 기법, 예술가의 제작 의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상력이 만든 감상자의 표상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비평적 반성을 통해 감상자는 작품의 의미를 표상의 단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뒤프렌은 비평적 반성만으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 수준에 그친다고 보았다. 객관적인 분석만을 하다 보면 작품 속에 담긴 내면적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감상자의 미적 지각은 공감적 반성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였다. 공감적 반성은 작품이 자아내는 내면적 의미를 감상자가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감동을 얻는 단계이다. 이 감동은 작품의 내면적 의미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감상자가 예술가의 감정이 ‘표현된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면서, 그 세계와 자신의 내면세계가 일치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뒤프렌은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대상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 미적 지각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② 미적 지각은 어떤 단계를 거칠까?  
- 미적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③ 미적 체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미적 지각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 ④ 미적 지각과 미적 대상은 어떤 관계일까?  
- 감상자의 감정을 중심으로
- ⑤ 미적 대상의 역동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공감적 반성을 중심으로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상자가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부터 예술 작품은 미적 대상이 된다.
- ②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감동을 얻을 수 있다.
- ③ 상상력이 만든 환상은 객관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 ④ 시공간적인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감상자는 작품 속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 ⑤ 예술가의 제작 의도에 대한 파악만으로는 작품에 담긴 내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감상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1>



이 그림은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 한 잔’으로, 여인의 흰옷과 남자의 검은 옷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룬다. 또한 두 남녀의 표정은 다소 침울하게 묘사되어 있다.

<보기 2>

- ㄱ. 두 남녀의 의상에 드러난 명암의 차이가 눈에 띄어서 시선이 갔다면 현전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 ㄴ. 명암의 차이를 통해 두 남녀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상황을 떠올렸다면 표상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 ㄷ. 유럽의 작은 도시의 카페에서 두 인물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면 비평적 반성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 ㄹ. 두 인물의 침울한 표정에서 느낀 도시인의 고독감이 자신의 고독감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다면 공감적 반성 단계의 감상으로 볼 수 있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 ㉠과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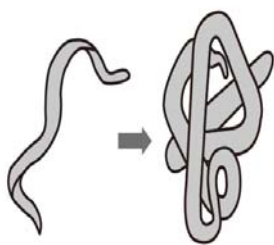
- ① 그는 모자라는 돈을 친구에게서 취했다.
- ②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 ③ 수술 후에 어머니는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
- ④ 물질적 이익만을 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그가 제시한 조건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했다.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소포체 스트레스’와 ㉠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이 있다.

소포체는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칼슘 농도 변화 등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잃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 비정상적 단백질이 축적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변성은 소포체 내의 ‘단백질의 접힘(folding)’과 관련이 있다. 단백질의 접힘은



<그림>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정교하게 꼬이고 접히고 감겨서 복잡한 입체 구조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의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단백질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이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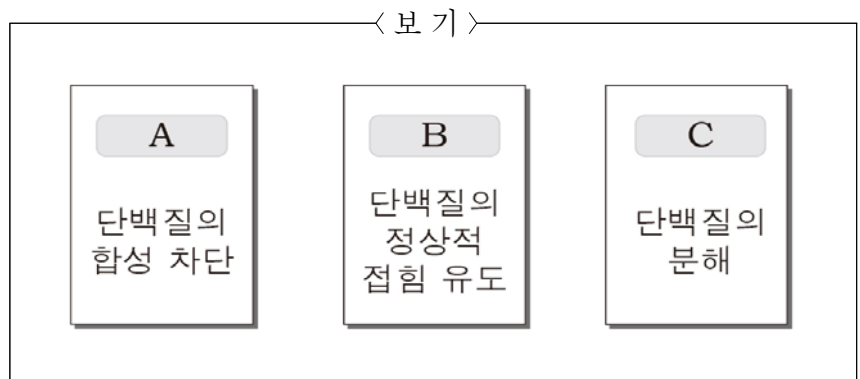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소포체는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고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라 한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백질의 하나인 GRP78이 소포체 막에 위치한 PERK, IRE1, ATF6 등에 결합하여 이들의 활성을 억제한다. PERK, IRE1, ATF6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센서(sensor)인데,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센서에서 GRP78이 분리되어 센서는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센서 중 PERK는 단백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합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IRE1과 ATF6은 단백질의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인 샤페론의 양을 늘린다. 증가한 샤페론은 비정상적으로 접혀 있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접히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도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되어 분해된다. 만약 소포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소포체가 기능을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개체의 유익을 위하여 소포체는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소포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기 치유 능력인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2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포체는 소포체로 유입된 단백질을 가공한다.
- ②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은 그 구조가 입체적으로 바뀔 때 변성된다.
- ③ 소포체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면 소포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 ④ 소포체는 전체 개체의 유익을 위해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 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면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5. <보기>는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가 일어날 때 센서는 GRP78과 분리된 상태에 있다.
- ② 샤페론의 양이 증가하면 B가 일어난다.
- ③ A와 B에 관여하는 센서는 서로 다르다.
- ④ B를 거친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C를 통해 정상적으로 바뀐다.
- ⑤ 소포체 내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단백질은 소포체 밖으로 운반된 후 C가 이루어진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세포자멸사’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 질환의 발병 원인 중의 하나임을 밝혀냈다.
- (나) 다발성 골수암의 암세포에 특정 약물을 투여해 ‘세포자멸사’를 유도하여 좋은 치료 효과를 얻었다.

- ①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 질환은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겠군.
- ② (가)를 보니 퇴행성 신경 질환을 치료하려면 소포체에 비정상적 단백질이 유입되어야겠군.
- ③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로 볼 수 있군.
- ④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약물로 볼 수 있군.
- ⑤ (나)를 보니 특정 약물은 암세포의 단백질 구조 변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약물로 볼 수 있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기관의 작용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권익의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행정구제제도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있다.

행정상 손해전보는 행정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를 금전적으로 갚아 주는 제도이다. 이는 배상 및 보상의 원인에 따라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과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으로 구분된다.

[A]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심의회에 지급 신청을 한 경우, 배상심의회는 결정을 신청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건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기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행정작용의 효력의 유무나 부당성을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소송을 행정기관에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기하느냐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작용 때문에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나 해당 행정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작용을 취소·변경하거나 각종 처분을 내린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심판에 따르는 것에 비해 개인의 소송 비용과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권익을 침해 받은 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보호 받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며, 급박한 사안일 때에 가능하다. 당사자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행정작용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작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더라도 행정작용의 취소 등이 공공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면 기각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익 추구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영조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

27.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행정쟁송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행정구제제도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행정상 손해배상의 문제점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행정구제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⑤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절충하고 있다.

28. 밑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소송의 성립 요건
- ②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 ③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
- ④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 ⑤ 행정상 손실보상의 도입 취지

2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배상 신청자가 배상심의회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②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 행인이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주민들을 위한 도로 공사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④ 행정기관의 결정 절차를 거치고도 행정상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 한해 행정기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의 식당은 구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고 한 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 ① ‘갑’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겠군.
- ② ‘갑’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갑’의 상황을 급박하다고 인정한 것이겠군.
- ③ ‘갑’이 행정기관에 심판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군.
- ④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군.
- ⑤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도 되겠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어느 날 ‘나’는 동림산업 오 사장이 타고 가던 자동차에 치이고, 동림산업 측에서는 ‘나’에게 보상금 지급과 취직 중 하나를 택하라는 제안을 한다. ‘나’는 취직을 택하고, 오 사장의 비서는 병원에 신문 기사를 대동해 나타나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사진을 찍는다.

오 선생이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는 훨씬 더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다. ㉠ 다음날 오후에 오 선생이 석간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혈레벌떡 달려왔다.

“이렇게 지독하게 나을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나는 오 선생이 코앞에 펼쳐 보이는 기사를 읽었다. ‘마르지 않은 인정의 샘’이라는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으로 ‘자해(自害) 상습범에 뺀친 갱생(更生)의 손길’이라고 적혀 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 없다는 듯이 손바닥을 펴서 턱 부근을 약간 가리고 있는 사내의 사진이 그 아래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죄(前罪)를 뉘우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허위투성이의 기사였다. 우선 ‘권기용 씨(가명·37세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거주)’라고 기재된 인적사항부터가 엉터리였다. 엄연한 내 본명을 가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이다. 특히나 심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은 그 점이었다. 멀쩡한 대낮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가 전과자임을 밝힌 그 대목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해 행위를 하다가 얻은 전과인 듯이 그릇된 인상을 줄 염려가 다분하게 매우 애매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나를 자기 회사 사원으로 특채함으로써 웅달 속의 인생에 거듭나는 기쁨을 안겨 준 미담의 주인공 오 사장은 왕방(往訪)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인간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번번이 남들이 알게 돼서 그저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끝으로 그 기사는, 화제의 인물 오만한 사장이 과거에도 부지수로 어려운 사람들을 형제처럼 도운 바 있는 숨은 독지가이며, 그가 경영하는 동림산업은 목화표 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전도유망한 신진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 “이따위 놈들은 가만 내버려 뒀선 안 됩니다! 명예 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오 선생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해 연신 안절부절을 못 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내가 그를 진정시키고 위로할 정도였다. 그의 흥분을 나는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크게는 구두를 태운 뒤로 무섭게 변모해 버린 이웃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자 새로운 우려의 표시일 것이었다. 그리고 작게는 처음부터 이번 일에 대리인 자격으로 깊이 관여한 데서 느껴지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었다. 하지만 ㉢ 나는 오 선생이 걱정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로서는 진즉부터 예감하고 마음으로 대비해 나온 수많은 경우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계산이 있겠지만 전 저대로 또 계산이 있습니다. 실직자인 데다가 전과자라는 사실까지 밝혀진 건 내 약점이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허위 보도를 하게 만든

건 그들의 약점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존동생하겠다는 세상 아닙니까. 내 손에도 약점 한 가지가 쥐어진 이상 저들이 나한테 건넨 약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권 선생,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소?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소?”

오 선생이 그렇게 흥분하면 할수록 더욱더 차갑게 가라앉는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오 선생한테 빚지고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나 부끄럽긴 아마 마찬가지로 겹칩니다. 허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부터라도 빚 안 지고 신세 안 져도 되는 부끄러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 구두를 태우기 전이면 오 선생보다 훨씬 더 분하고 억울하다고 펄펄 뛰었을 겁니다. 허지만 오 선생도 아시다시피 이미 구두를 태워 버린 겁니다.”

“땅바닥에다 내던지는 걸 주워 먹는 똥개 신세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그러셨죠? 천만에요! 내 눈엔 지금 권 선생이 똥개 그 이하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에 단대리에서 살 적에 우리 집 동준이란 놈이 시궁창에다 과자를 집어던지는 걸 봤습니다. 동네 꼬마 하나가 그걸 주워 먹겠다고 독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나는 꼬마 녀석을 때리는 대신에 내 자식 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수진리 고개 밑에 가면 양산도집이란 술집이 있죠. 그 집에서 전에 작부로 일하던 신 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여자를 오 선생한테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긴 얘기를 나누고 나면 아마 오 선생도 누구를 때리고 싶다, 누구를 때렸다는 말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오 선생 생각은 오 선생이 경험한 바탕 안에서만 출발하고 멈춥니다. 자기 경험만을 바탕으로 남의 생각까지 재단하기는 애당초 무립니다. 오 선생은 보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 본 적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시워하다 말고 얹어진 트럭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참외를 주워 먹는 인생들을 본 적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은요? 그리고 생명만큼이나 아끼던 자기 구두를 태우는 아픔은요? 이 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이런 일 모두가 사회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탓에 자업자득으로 그런 거니까 뒤늦게나마 좀 넉넉해 보자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선생더러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산 속으로 끝까지 가 봐도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되돌아서 들관 쪽으로 나와 보려는 것뿐입니다.”

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나왔는지도 모른다. 어쨌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었다. 오 선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나는 그의 침묵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형식이든 혀를 차는 형식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작정했다.

— 윤홍길, 「직선과 곡선」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시점의 이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직선과 곡선」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시민의 삶을 통해 가진 자의 횡포와 위선 등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부조리한 상황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모습은 때로 현실 타협적인 태도로 드러나기도 한다. 결국 작가는 소시민의 현실타협적인 태도를 통해 이를 야기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꾸어 놓은 사건 조작을 통해 가진 자의 횡포를 보여주는군.
- ② ‘오 사장’ 측이 거짓 선행을 의도적으로 알리며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에서 가진 자의 위선을 엿볼 수 있군.
- ③ 산 속으로 끝까지 가 봐도 길이 없었다는 ‘나’의 말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세상이라는 ‘나’의 말에서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오 선생’에게 신세 지며 실직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서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33.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의 연작소설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권 씨는 ‘구두’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보여준다. 권 씨에게 ‘구두’는 ‘구두’ 이상의 것으로,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구두’의 의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권 선생의 삶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	→	㉡
구두를 태우기 이전		구두를 태운 이후

- ① ‘나’가 양산도집의 ‘신 양’에 대해 언급한 것에는 ㉠에서의 ‘나’의 삶을 변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나’가 생명처럼 여기는 구두를 태운 것은 ㉠에서 중시했던 자존심을 버리고 살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 ③ ‘나’가 이제부터라도 넉넉하게 살겠다고 하는 말에서 ㉡에서 ‘나’가 택한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
- ④ 보기 나뭇이고 생각하기 나뭇이라는 ‘나’의 말에서 ㉡의 현실에 적응하여 살려는 삶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나’가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에서의 삶의 태도가 ㉡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3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당혹해 하는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다.
- ② ㉡: 보도된 기사 내용에 대한 인물의 분노가 담겨 있다.
- ③ ㉢: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이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 싫어하는 냉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⑤ ㉤: 상대방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인물의 심리를 알 수 있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마가 드디어 개연히 길에 올라 여러 날을 행하여 양주(涼州) 지경에 이르니, 태수 적성이 양주 성문 밖까지 나와 영접하는지라. 부마가 물어 가로되,

“근일에 적병의 소식이 어떠하뇨?”

적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근일에 적병의 소식을 탐문하온즉, 토변이 회홀로 더불어 연합하여 바야흐로 두 길로 들어와 침노할 것을 의론한다 하니, 군사가 각각 수십만이요, 병마가 강성하여 그 날카로운 기세를 가히 당치 못하리이다.”

부마가 듣고 곧 나아가고자 하거늘, 적성이 간하여 가로되,

“적병의 형세가 심히 강하니 갑자기 가지지 못하오리다. 명공은 아직 이 성에 머무르며 궤하에 표\*를 올려 대군을 징발하여 물려오는 날카로운 기세를 막음만 못하리이다.”

부마가 웃어 가로되,

“내가 이미 황명을 받들어 오랑캐 나라에 사신으로 왔거늘, 어찌 가히 저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가지 아니하리오?”

드디어 적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수레 모는 이를 꾸짖어 수레를 몰아가니, 토변이 이미 본국을 떠나 백랑하 북편에 진을 친지라. 부마가 곧 토변의 진중에 이르니, 찬보가 대당 천자가 사신을 보내어 이른다는 말을 듣고 이에 막사에 높이 앉아 크게 군대의 위세를 베풀고 기다리니, 부마가 뿔뿔이 들어가되, 찬보가 의자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않거늘, 부마가 책망하여 가로되,

“우리 천조 대신이 황명을 받들어 이르거늘, 오랑캐 왕은 어찌 내려 영접치 아니하고 거만함이 이같은뇨?”

찬보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전일에 우리나라가 군사를 발하여 서로 구원치 아니하였으면 중국이 어찌 능히 번진의 난리를 평정하였으리오? 대당 황제가 나의 큰 은덕을 잊고 해마다 금과 비단을 보내는 것이 줄어들고, 또 나를 의심하여 다시 수항성을 쌓으니, 이것이 어찌 화친하는 도리리오? 이제 수십만 대군을 거느려 장차 중국으로 곧바로 들어가 맹약을 위반한 연고를 묻고자 하거늘, 너는 어린아이로서 감히 와 무슨 말을 하는가?”

부마가 가히 말로써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이에 크게 꾸짖어 가로되,

“오랑캐 왕이 망령되이 병마의 강함을 믿고 신하로서의 예를 전혀 없이 하니, 천자께서 만일 사신의 명에 항거하였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며칠 못가 마땅히 문죄하는 군사를 일으켜 오랑캐들을 소탕하리로다.”

찬보가 크게 노하여 좌우에 명하여 끌어내리게 하고 협박하여 절하게 하니, 부마가 꺾끗이 서 굴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천조(天朝) 대신이 어찌 가히 개와 양의 무리에게 굴하리오?”

찬보가 더욱 노하여 무사로 하여금 내어 베라 하니, 번장 아이영이 간하여 가로되,

“들은즉 이 사람은 대당 천자의 부마라 하니, 아직 냉옥(冷獄)에 가두었다가 당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베어도 늦지 아니하리이다.”

찬보가 그 말을 좇아 좌우를 명하여 붙들어 가 부마를 냉옥에 가두게 하더라.

부마가 절모(節旄)\*에 절하고 의연히 나아가 옥문 밖에 이르니, 사면이 산인 가운데 다만 초옥이 수 칸 있으되, 얼음과 눈이 가득하고 또 마을의 연기가 없어, 다만 깨닫진대 냉기가 몸을 뚫어 얼어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부마가 문득 원수

의 작별할 때의 말을 상기하고 급히 [비단 주머니]를 열어 보니, 그 안에 네 구의 말을 썼으되,

“냉옥에 갇히게 되어 이 환약을 먹으면, 무사히 환국하고 기한(飢寒)\*을 면하리라.”

하였거늘, 부마가 보기를 다하더니 크게 놀라 또 안을 열어 본즉, 안에 환약 수십 개가 있으되 작기가 파두(巴豆)씨와 같고, 그 빛이 붉고 검은지라. 시험하여 4, 5개를 먹은즉, 문득 사지가 따뜻하고 골절이 화평하여 냉기가 능히 침노치 못하거늘, 부마가 마음속으로 기이함을 일컬고 스스로 해아려 가로되,

“원수는 진실로 선인이로다. 어찌 능히 내가 오늘날 재액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이 영약을 주었으리오?”

이로부터 마침내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명을 기다리되, 처하기를 태연히 하여 조금도 냉옥으로써 괴로워함이 없더라.

[종락 줄거리] 천자는 부마가 토변에 사신으로 떠난 후 소식이 끊기고, 번병이 자주 침입하자 토변을 정벌하기로 한다. 이에 원수가 토변을 소탕하고 부마를 구해오겠다고 출정을 허락 받는다.

이때에 찬보가 이미 양주성을 함락시키며, 태수 적성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가 되었으나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니, 원수가 마침내 표를 올려 적성의 충절을 기리기를 청하더라. 성문 밖 20리에 진을 친 후, 사자를 성 안으로 보내어 토변의 맹약을 어긴 죄를 책망하니, 찬보가 대답치 아니하고 번병 10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크게 열고 나오거늘, 원수가 높은 언덕에 올라 번병의 진세를 바라보고 비밀히 전장군 마수를 불러, ‘일만 군사를 거느리고 가만히 산비탈 소로로부터 양주성 후면에 이르렀다가 번병이 다 나오기를 기다린 후 밤을 타 그 성을 빼앗으라’ 하고, 또 양월·손형 두 장수를 불러, ‘각각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진 뒤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번병이 패하여 달아나기를 기다려 나의 호포\* 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와 공격하라’ 하니, 세 장수가 각각 군령을 듣고 가더라. 원수가 드디어 대군을 거느리고 진세(陣勢)를 편 후 기다리더니, 찬보가 원수를 바라보고 마음에 그 나이 어림을 업신여겨 반드시 사로잡고자 하여, 창을 비껴 들고 말을 몰아 곧바로 원수를 취하려 하거늘, 원수가 말을 돌려 달아나니, 찬보가 번병을 몰아 힘을 다해 추격하는지라. 원수가 군대를 퇴각시켜 20리에 진을 치니, 찬보가 번병 중에서 늙은 자와 약한 자 수천으로만 성을 지키게 하고, 정병을 다 거느려 뒤를 쫓아 와 힘을 모아 당병을 깨치고자 하더라.

원수가 번병을 탐지하매 승승장구하는 여가에 바야흐로 갑옷을 벗고 안장을 끌러 태만히 방비하지 않거늘, 삼경에 삼군을 거느려 재촉하여 곧바로 번병의 진중으로 들어가니, 번병이 잠든 중에 고함소리를 듣고 창황히 놀라 깨어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지 못하고 다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하더라. 찬보가 황망히 아이영과 같이 겨우 생명을 보전하여 북방을 향하고 달아나거늘, ㉔ 당진 중에서 호포 일성에 양월·손형 두 장수의 군사가 좌우로부터 나와 공격하니, 번병이 전후좌우가 모두 당병의 깃발임을 보고 도망할 길이 없어 다 땅에 엎드려 항복하기를 청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표: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 임금에게 올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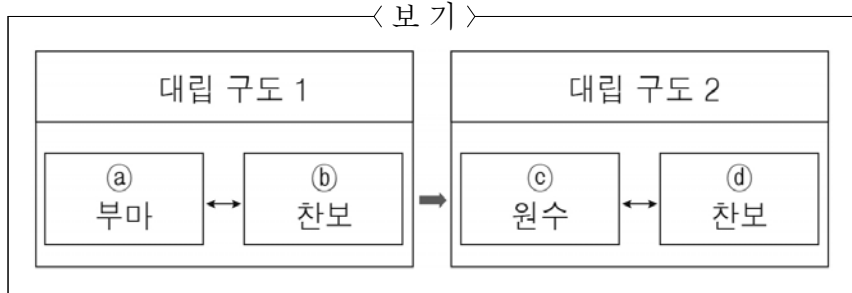
\* 절모: 중국에서, 천자가 임명의 표적으로서 출정하는 장군이나 사신에게 주던 기(旗).

\* 기한: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 호포: 군대에서, 신호로 쓰는 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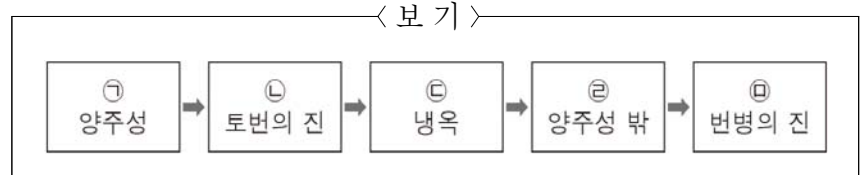


35.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대립 구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군사적 위협을 예고하여 ㉡의 태도 변화를 꾀하고 있군.
- ② ㉡는 과거의 사실을 환기하며 ㉠의 질타를 공박하고 있군.
- ③ ㉢의 선제 공격에 의해 ㉣의 세력이 위축되는군.
- ④ ㉣는 ㉢를 업신여기는 오만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는군.
- ⑤ 대립 구도 1은 ㉡가 대당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군.

37. 윗글의 공간 구조를 <보기>와 같이 순차적으로 정리할 때 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마가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서 거치는 공간이다.
- ② ㉡는 찬보가 부마에 대한 처형을 유보하는 공간이다.
- ③ ㉢은 부마가 조력자의 도움 없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 ④ ㉣은 원수가 충신의 충절을 기리기를 청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원수의 치밀한 계획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36. [비단 주머니]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수의 소식을 부마에게 전해주는 매개물이 된다.
- ② 찬보와 아이영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된다.
- ③ 원수의 비범한 예지 능력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 ④ 부마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고뇌하는 이유가 된다.
- ⑤ 부마가 찬보에 대해 갖는 의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38.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 ② 고진감래(苦盡甘來) |
|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④ 금의환향(錦衣還鄉) |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위에 섰는 솔이 늑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 빛을 가져 변할 줄 모르나니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이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꽃이 무한호되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뛰여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아니 귀(貴)고 어이리

백설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을 여니  
㉠ 온갖 꽃 간 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째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늑연한: 위엄 있고 당당한.

\* 동리에: 동쪽 울타리에.

\* 번폐하고: 번거롭게 가리고, 마다하고.

\* 엄상: 된서리.

\* 한 빛: 같은 색의 빛.

(나)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 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득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쭙 앓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날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자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동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며 푸념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할 친구라 하여 새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 같이 친구로 대한다.

(중략)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름을 새겨 보고, 흔히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 가고 송두리째 베어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 간 재목이 혹 자기를 해칠 도끼 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 이양하, 「나무」 —

\* 득박: 얻은 것이나 주어진 것이 적음.

\* 견인주의자: 육체적인 욕구를 의지의 힘으로 억제하려는 주의나 주장을 가진 사람.

\* 철인: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 철학자.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점층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광해군의 폭정에 상소하였다가 함경북도 회령에 유배되었을 때 창작되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당시 정치 상황에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숙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고고한 정신을 드러냈다. 또한 유배지에서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씩씩한 기상을 드러냈다. 작품에 사용된 소재들은 당대의 상황과 이에 따른 작가의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술’이 ‘풍상’을 겪는 모습을 통해 당시 정치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작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봄 빛’은 자신의 뜻을 바꾸는 숙된 선비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작가가 지니고자 하는 삶의 자세라 할 수 있군.
- ③ ‘춘광(春光)’을 마다하고 피는 ‘국화’를 ‘청고한 내 벗’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고고한 정신을 느낄 수 있군.
- ④ ‘눈 속’에서 핀 ‘매화’가 눈과 ‘한 빛’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당대의 정치 현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대’나무가 ‘백설이 잦은 날’ 부는 찬바람을 ‘청풍’이라 여기고 이를 반긴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씩씩한 기상을 엿볼 수 있군.

41. (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고즌 므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풀은 어이ㅎ야 프르는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 바회썸인가 ㅎ노라.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中 제3수 －

- ① ㉠은 가변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불변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② ㉠은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고, ㉡은 불모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③ ㉠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고, ㉡은 고독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④ ㉠은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고, ㉡은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은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존재이고, ㉡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존재이다.

42.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 ③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 ④ 타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頤)\*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앓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키운.
-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춥고 차가운.

(4)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쿵발 김칫거리  
 아쉬울 때 ㉠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한 백성  
 ㊤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 새터, 중뜸, 갈메: 지명.

\*까 여 다 여: 말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종결 어미만을 나타낸 것.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구사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특정 어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의 시상은 화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하고 외부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기도 한다.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자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환기를 바탕으로, 후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때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는 타향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고달픈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② (가)는 화자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③ (가)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나)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귀갓길을 늦은 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나)는 선제리 아낙네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화자 자신이 처한 공간과 대상이 처한 공간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있군.

45.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의미한다.
- ② ㉡: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슬픔이 드러난다.
- ③ ㉢: 삶에 대한 선제리 아낙네들의 비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④ ㉣: 선제리 아낙네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 선제리 아낙네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드러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